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책회의

‘전주형 마을부엌’ 운영성과 · 발전방향 모색

김승수 전주시장, 확진자 급증에 따라 체계적 방역대책 추진 등 주문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방역점검 강화 및 재택치료 체계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시장실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시장실에서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이후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날 역대 하루 최대치인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 집중 후 기간 경과로 인한 돌파감염자가 급증하자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시는 또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라인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신속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돌파감염 확

확자가 많이 발생 숫자가 1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가져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며 공동체 활동을 갖는 마을부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주)는 지난 7일 전주시상상공인연합회 강당에서 마을부엌 사업 참여자들과 활동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마을부엌’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전주형 마을부엌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된 것으로, 이날 성과보고회는 그

간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운영됐다. 전주형 마을부엌의 경우 △의료취약계층과 함께했던 ‘건강한 수다방 마을부엌’ △중년(퇴직)남성들의 ‘오랫따차 마을부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채식하는 마을부엌’ △청년 학생들의 ‘자립하는 마을부엌’ 등 4가지로 구성돼 매주 1회씩, 마을부엌별 20회 이상 진행됐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고 만들어보며, 각 마을부엌별 특성에 맞는 공동체 활동이 결집돼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채식하는 마을부엌은 개

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채식 실천하면서 일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실천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또 중년남성들의 ‘오랫따차 마을부엌’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식습관 교육과 동시에 매회 음식을 추가로 만들어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도 추진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주형 마을부엌 시범사업 참가자들이 덕진선별진료소와 화산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밀반찬, 도시락 등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윤상 기자

전주자봉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우수 기관 선정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힘써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시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우수 자원봉사센터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30여 일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 3145명을 투입,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이동 안내 및 질서 유지, 접수 안내 및 예진표 작성, 이동차 밀착동행, 동반아동 보호 등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QR코드 기부 시스템’ 시행

QR코드(정보 무늬)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간편시스템이 도입됐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이병관)은 간편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QR코드 기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QR코드 기부 시스템은 기부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부링크(URL)를 클릭하면 기부페이지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전주시 SN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관 이사장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주시민 여럿의 힘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한 기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인문매거진 ‘인문전주’ 2호 발간

전주시는 다양한 인문콘텐츠를 담은 인문매거진인 ‘인문전주’ 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창간호에 이어 발간된 ‘인문전주’는 70페이지 분량의 잡지 형태로, 인문학 저자의 인터뷰 내용과 인문예세이 등을 담고 있다. 인문전주 2호에는 특별기획으로는 청년 회곡작가인 송지희 씨 인터뷰가 수록됐으며 △사물 인문학, ‘견딜 수 없는 사물들’ △자연 인문학, ‘나비가 온다’ △미래교육, 미래교육과 정치적 표백시대 △철학, ‘일상적인 미학과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

한국출판인회의 주최 ‘출판인의 밤’ 시상식서 독서문화 · 출판문화 진흥 이바지 공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를 만들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내 출판인들로부터 대한민국 독서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수 시장은 8일 서울 아만티호텔에서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열린 ‘출판인의 밤’ 시상식에서 독서문화 및 출판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승수 시장은 8일 서울 아만티호텔에서 한국출판인회의 주최로 열린 ‘출판인의 밤’ 시상식에서 독서문화 및 출판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산업적 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책과 함께 문화적 의미를 새기고 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독서와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인사를 올해의 출판인으로 선정해 분상과 공로상, 부문별상, 특별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주를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이자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로 만들고, 전주만의 독서문화 콘텐츠와 특별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해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출판인상의 특별상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김 시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어 작가 강연과 공연, 전시, 학술토론, 독서체험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5년 동안 100권의 고전(古典)을 함께 읽는 독서운동인 ‘고전 100권 함께 읽기’도 시작했다. 김 시장은 또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전주책사랑포인트 책공작’을 도입했으며, 전주 곳곳에 들어선 특화도서관을 버스 타고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인 ‘도서관여행’ 프로그램도 선을 보였다. 여기에 김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든 책을 읽고 책과 놀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다. 시청 로비를 열린 도서관으로 만든 책기동도서관을 비롯해 확산속속시립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팔복에 술공작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도서관 등 다양한 특화도서관이 조성됐으며, 딱딱했던 정형적인 도서관 분위기에 아이들 책과 함께 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책놀이터로 정비하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에 조성된 ‘우주로 1216’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 삶의 중심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도서관을 통해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도서관 여행으로 시민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사랑받는 인문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